

미 빌보드, 여자친구 신곡 '열대야' 호평

미국 빌보드가 걸그룹 여자친구(사진)의 컴백을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는 "여자친구가 차가운 밤에도 식지 않는 로맨스의 열기를 고스란히 담은 화려하고 날렵한 댄스 트랙 '열대야(FEVER)' 로 멤버들의 풍부한 보컬과 비트 드롭, 뭉바톤 리듬의 영감을 받아 완벽한 쇼를 만들어냈다." 며 여자친구의 '열대야' 를 극찬했다.

이어 "여름밤 로맨스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에는 트로피컬한 이미지 속에서 후회 없이 갖고 싶은 사랑을 노래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담겨있다. 열대 화초, 선셋, 선인장, 사막, 그리고 주유소를 배경으로 보여지는 강력한 안무가 매력적이다." 고 소개했다.

미국 통신사 UPI 역시 신곡 '열대야(FEVER)' 뮤직비디오를 첨부하며 "파스텔 컬러를 입은 여자친구가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왔다." 고 집중 조명했다.

여자친구는 지난 1일 일곱 번째 미니앨범 '피버 시즌(FEVER SEASON)' 을 발표하며 글로벌 대세 걸그룹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타이틀곡 '열대야(FEVER)' 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열대야' 에 비유한 노래로, 기존 여자친구의 음악과는 또 다른 느낌의 드랍과 경쾌한 뭉바톤 리듬으로 팝적인 색깔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울여름 리스너들에게 '열정의 여름' 을 선사하고 있다.

배우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



배우 전종서(25·사진)가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을 맡아 미국에 진출했다.

2일 소속사는 "전종서가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의 새 영화 '모나 리자 앤 더 블러드문' (Mona Lisa and the Blood Moon)의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며 "영화 '버닝' 을 통해 그를 눈여겨본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 측의 러브콜을 받고 오디션을 거쳐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고 전했다.

'모나 리자 앤 더 블러드문' 은 미국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비범하면서도 위험할 힘을 지닌 소녀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달 30일 크랭크인 했으며 전종서 외에 케이트 허드슨, 크레이그 로빈슨, 에드 스크레인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다.



메가폰을 잡은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작은 사진)은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 (2014), '더 배드 배치' (2016) 등을 연출했다. '더 배드 배치' 는 제7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2015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버드맨' 으로 작품상을 받은 존 레셔와 팀란 위서레드가 '모나 리자 앤 더 블러드문' 의 제작을 맡았다.

HOT 여전한 인기 ... 콘서트 티켓 7분 만에 매진

지난해 17년 만에 재결합한 HOT의 2회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며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모든 예매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그룹 HOT의 단독 콘서트 '2019 High-five Of Teenagers' 티켓이 판매 시작 후 7분 만에 매진됐다.

콘서트 티켓을 단독 판매하는 옥션 티켓에서는 15만 명 동시접속이 카운팅됐고, 평균 대기인원 5만명을 넘기는 등 1년 전에 있었던 표 전쟁이 재현됐다.

HOT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HOT는 1년 전 재결합 콘서트 후 "1년 후 다시 만나자" 고 말했다.

고척돔은 하루 1만8,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3일 공연에 총 5만4,000여명이 입장할 수 있다.

1996년 데뷔한 HOT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총 5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다. 다섯 장의 정규 앨범 모두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2001년 5월에 해체 되었으나 작년 2월에 재결합했다.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